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에 근거한 '李箱 詩'의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Lee-Sang's Poems based on McLuhan's Media theory

정수경, Soogyung Jung* , 한광파, Kwangpa Han** , 명세화, Shihua Ming** ,
강경규, Kyung-Kyu Kang** , 김동호, Dongho Kim**

요약 맥루한의 사상서는 미디어의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가 말하는 -하나의 감각에 편중되지 않은- "촉각적 글쓰기" 는 바로 이상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 구체시의 시초로 자리 잡은 이상의 작품은 현대에 와서 재조명되고 있다. 난해하고 복잡한, 정신분열증의 결과물로 발간 이후 끊임없이 화제가 되었던 그의 시는 재조명 과정에서 시각예술의 단편으로 실험적 정신과 한국 다다이즘의 실체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 시의 진정한 의미는 회화적 측면 혹은 감성적 측면에 치우치지 않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각의 확장' 이라는 미디어의 관점으로 그의 세계를 재해석 하고자 한다.

Abstract McLuhan's work has enormous power in the study of media theory. In Lee-Sang's works, we can find out the Macluhan's idea, "tactile" writing, which enhances more than one single sense. Lee-Sang's pieces, viewed as the origin of Korean concrete poetry, are being reconfigured in modern times. After publication, Lee-Sang's esoteric and complicated poem was considered as the result of schizophrenia. However, in the reconfiguring process, his continuously issued poems were reconsidered as a fraction of visual arts and analyzed as the substances of Korean dadaism and an attitude to challenge. But the real importance of Lee-Sang's poem is the extension of a sense; his poem is unbiased either by visual part or by emotional part, though one sense is extended to another sense. Now you will see the reinterpretation of Lee-Sang's world from the viewpoint of media, 'extension of senses'.

핵심어: 이상, 한국구체시, 촉각적 글쓰기, 맥루한, 감각의 확장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G00006).
*주저자 :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 e-mai: alacy@ssu.ac.kr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 e-mail: kwangpa88@magiclab.kr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 e-mail: mingshihua@ssu.ac.kr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e-mail: rcrookie@magiclab.kr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e-mail: dkim@ssu.ac.kr

1. 서론

미디어의 세계는 인간에게 기술을 만끽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기술의 만끽은 감성에 대한 목마름을 낳았다. 그 목마름은 기술과 감성이 조화된 '뉴미디어'를 탄생시켰고 현재 뉴미디어는 '미디어 아트' 의 흐름으로 세계를 통일시키고 있다. 미디어 아트는 '단일화' 된 분야가 아니라 각 분야의 특성이 서로 어우러져 '미디어' 라는 매체로 만나고 있으며, 하나로 만난 이들은 인간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맥루한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확장' 이다[Mcluhan, "미디어의 이해"]. 문학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문학 텍스트 역시 기술과 접목되어 스토리텔링, 하이퍼텍스트, 타이포그래피 등의 새로운 텍스트를 탄생시켰다. 문학 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 의 세계는 '구어' 의 세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이상의 시는 같은 어구의 반복과 숫자들의 조합, 나열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 '구체시' 의 시초가 된다. 맥루한의 이론이 확산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 이상이 미디어를 향한 선구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음을 그의 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상과 맥루한이 서로 만나지는 않았으나 동시대에 활동했음을 고려한다면 결코 그의 시 세계를 한 가지 관점으로만 이해,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과 맥루한은 동시대에 동양과 서양이라는 각기 다른 공간에서 미래지향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은 그의 이론을 시로 펼쳤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시에서 보여지는 미디어의 면모를 맥루한의 이론으로써 재조명해 보았다. 맥루한이 말한 언어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용이하게 운반하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축적하는 도구" 이며, 그 언어의 문자화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였다. 또한 그는 '촉각성' 이 단순한 접촉성을 벗어나 다른 감각의 동원과 함께 하나의 전체적 경험을 이루는 것이라 정의하며 '촉각적 글쓰기'를 강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시에서 볼 수 있는 공감각적 경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 감각의 시를 시각예술적인 '구체시'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색깔로 새로운 흐름으로 만들어야 함을 논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앞서 말한 맥루한의 '촉각적 글쓰기' 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고 그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상의 청각과 시각의 감각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이상 시에 대한 여러 견해 중 '시각화' 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며 그의 시의 구조적 의미에 대하여 짚어보았다. 구조적 의미에 이어 2장에서 살펴본 '감각의 확장' 에 대하여 감각적 발달과 그 감각들의 계속적인 작용들이 어떤 식으로 이상 시에서 다른 감각으로 확장, 전이되었는지 제 4장에서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왜 맥루한의 이론인가

맥루한은 1951년 〈산업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구텐베르크 은하계 : 문자인간의 형성〉,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등 미디어계의 손꼽히는 사상서를 출간하였다. 책 출판 당시 그의 이론은 찬사와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으나 21세기, 현재 그의 사상은 미디어 이론의 최고의 권력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이론은 구어와 촉각의 세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촉각적 글쓰기'를 강조하였다. 그는 '말이라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을 소통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수단' 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문자화와 그에 따른 번역기로서의 말 이전에 '언어' 라는 말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자'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구어'가 존재했으며, "구어는 인간의 모든 감각을 드라마틱하게 관여시킨다"고 맥루한은 말하고 있다. 구어라는 것이 문자 이전에 존재한 인간 본연의 감각적 도구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어의 특성은 문학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문학에서 볼 때, '구어'의 의미는 '시'에서 그 개념이 가장 용이하게 텍스트에서 '말'로 전환되며, 이상의 시는 문자로 변한 구어를 읽는 이로 하여금 용이하게 '구어' 로 되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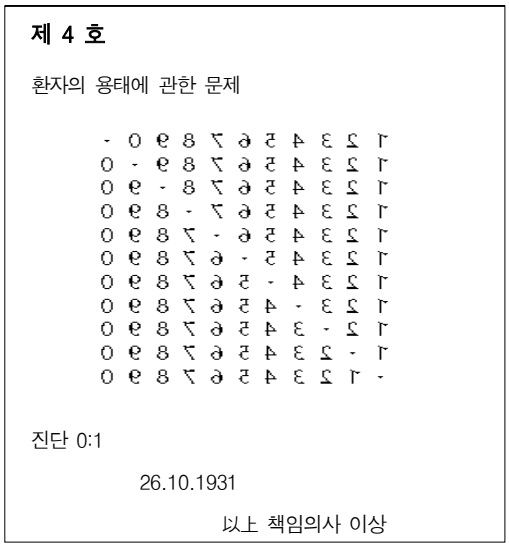
구어는 인쇄문화의 시작과 더불어 서서히 '문자화'되었다. 이 '문자화'는 문법이라는 체계화가 굳어지면서 구어 본연의 특성을 탈색시켰다. 생동감 있는 감각의 전이가 아니라 '문자화'라는 '시각'에 집중되기 시작했으며, '시각'으로 편중되어버린 인간의 감각은 문명의 발전 역시 '시각'으로 집중시켰다.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의 매체의 변화 또한 '시각'으로 과열되었고 맥루한은 이 현상을 "과도하게 집중된 '시각'은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의 감각에 편중된 지각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함께 동원되어 인지되는 지각이야말로 진정한 지각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촉각적 글쓰기'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촉각적 글쓰기는 앞서 언급한 숫자와 한글이 조화로 이루어진 이상의 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맥루한은 〈구텐베르크 은하계〉에서 소리를 시각적 기호로 전환하는 표음 문자가 주어진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그들을 전환시킨 경험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상형문자, 표의문자, 그림문자와 같은 글쓰기는 표음문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종류의 문자에 의한 글쓰기도 인간을 청각적 망인 총체적 상호의존과 상호관계로 구성된 세계를 이처럼 변환시킨 일이 없다고 한다. 이는 "정신분열증은 문자사용의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 라는 그의 말로 결론지어진다. 이상은 이처럼 소리로부터 추상화된 의미를 표음문자의 시각화로 스스로를 제한함과 동시에 그의 정신적 해방감을 추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위치-가족적, 사회적-는 그에게

정신적 압력을 가했고 그로 인해 그는 스스로의 해방을 또 하나의 자아로 희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그의 희석과정은 '청각' 이 '시각' 으로 확장되는 바로 '감각의 확장' 의 과정이었다.

3. 시각화로 자리 잡은 이상의 시

이상의 '오감도'는 연재를 시작한 1934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화제가 되었다. 사각형 안에 숫자의 배열로 시작되는 이 시는 숫자와 점의 배열이 작품의 처음에 위치하고 그 밑으로 나열된 말들과의 연관성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로 구성된 그의 시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의미 불명의 시로 해석되었으며 그 근거는 정체적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집안 환경과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


제 4 호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

진단 0:1

26.10.1931

以上 책임의사 이상

그림1. 『오감도 제4호』 전문

숫자의 그림화가 도식과 더불어 있는 짧은 진단서 형식의 위의 시는 부드럽게 읽히기 보다는 마치 지도를 보듯이이 '읽어가기' 를 해야 한다. 가족 회고록에서 그의 성격이 끊임없이 사색하고 작은 것에도 유심히 관찰하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과 그가 분명 숫자와 친한 직업적 환경을 보면 그의 시에 존재하는 많은 기호들이 단순히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기호를 통한 '시각예술'의 범주-형태적 구조적 측면-에 기울어져 그 자체에만 해석하는 것은 시의 전체를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신선하고 강한 해석을 한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본 이상 시의 혁명성(김민수)" 논문에서는 이상 시의 구조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다 같이 아울러 논하였다. "이상이 건축가였다는 사실이 분명한 이상 그의 시에 등장하는 많은 기호들이 단순한 텍스트적 '난해한' , '정신분열' 의 측면 만으로만 보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서 말 한 논문에서는 이상의 '선에 관한 각서' 에 대하여 "1에서 0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진 좌표에 각기 점들이 표기되어 있는 도표와 같은 그림으로 제시되고, 다음으로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시행들이 뒤따른다. 애초에 도상적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마치 지표면에 박혀질 어떤 건축물의 100개의 기둥들을 위한 평면 좌표와 같이 보여짐으로써 삼차원을 이루는 입체 구조를 제시하는 듯하다." 고 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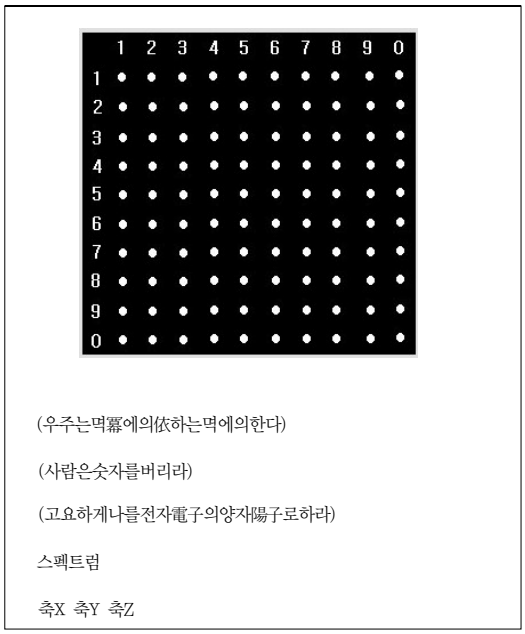


그림2. 『선에 관한 각서 1』 일부

즉 더 이상 이상의 시가 단순한 텍스트 겉돌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구조물에 이어 그 구조물의 건축 방법과 각 구조물의 상징이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분명 이것은 초기 이상 텍스트의 시각적 해석을 시도했던 많은 연구들이 이끈 귀중한 결과이다.

4. 맥루한의 '촉각적 글쓰기' 로 바라 본 이상의 시

이상의 시는 한국 '구체시'의 시초로 인식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그의 시는 '구체시'로써의 의미를 가지는 시들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 시들의 대부분은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혹은 정신분열증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혹은 '시가 아니다'라는 비난과 비평을 받았다. 숫자의 나열과 반복되는 말로 엮인 시들은 분명 당시대에는 충격적이었으며, 그의 시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프로이트적인 정신분석에 의한 '분열증' 혹은 '강박증'으로 결론지어졌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그의 시는 시각예술 측면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문학과 미술의 만남(김윤식)'[7], '화가로서 이상(오광수)'[8]등은 그의 시를 '문

학'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예술'의 시각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해석은 형태분석의 색깔이 강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미디어의 관점으로 이상의 시를 바라보았다. 당 시대를 들끓게 한 역사적 운동 혹은 그 시대의 관점에 입각한 내용과 형식의 이분법적인 분석, 혹은 둘 중의 하나에 치우쳐지는 선형적인 해석이 아닌 그의 작품이 가지는 형식과 그 형식에 담긴 내용을 함께 다루었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맥루한의 '촉각적 글쓰기'는 〈이상한 가역반응〉의 일부분인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에서 그 의미가 정확히 묘사되고 있다. 선형적인 감각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감각인 직선이 나머지 다른 감각을 퇴보시키는 것이다. 문자를 통한 '지각'이라는 감각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발전 시켰으며 그 매체의 발전은 '개별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 결과는 '지각'의 과열로 인한 나머지 감각들의 억압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문자화는 구어가 가지는 생동감보다 진실도가 높게 측정되며 동시에 구어를 억압하는 위치에 오른다. 이로 인해 우리는 문자화에 얽매여 시각으로만 '지각'하고 '인지'하게 되었다. 이상의 시는 이러한 감각의 부조화에 대항하고 있어서 그의 시를 읽기만 하거나 보기만 한다면 시 속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를 수용할 수 없다. 이는 앞서 말한 맥루한의 '지각'이라는 것이 하나의 감각에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5개 감각 가운데 어떤 하나의 감각을 강조하고, 그것이 전체 감각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상승시키게 되면 우리의 5개 감각들 간의 지배 비율은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 귀 혹은 다른 감각 기관의 감각은 전과 같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 감각들의 상호작용은 마취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모든 경험에 있어서 청각조직을 강조하는 삶을 사는 부족적이고 비문자적인 인간은 항상 몰아지경, 즉 개인이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1]. 여기서 우리는 청각이 강조될 경우 인간 감각이 현저히 바뀌게 됨을 이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상은 지식인의 한 명으로서 '문자'를 학습하였다. 당시 시대상황은 문자 확산의 초기였다. 즉 현재 '문자'가 하는 역할의 많은 부분을 '말'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은 지식으로써의 문자를 일상의 부분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은 그에게 중요한 감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상에게 '소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상은 큰 아버지의 양자로 길러졌다. 그의 양자생활은 큰 아버지의 내리 사랑과 그로 인한 큰 어머니의 질투와 갖은 잔소리의 상처로 얼룩져 있다. 큰 어머니의 '잔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혹은 얼떨결에 들어버리는 그 모든 '말'이 소리가 되어 그의 신경세포를 자극하였을 것이다. 그가 그의 자극된 신경세포의 진통을 또 다른 소리로 배출하였다면 아마 그의 작품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은 그에게 최소한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침묵'을 즐긴 그는 그의 모든 언어를 준비시켜 하얀 종이에 또 다른 감각으로 배열하였다. 이상에게 있어서 '소리'란 그의 정신적 분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에게 있어서 '청각'의 난제는 '시각'이라는 새로운 감각 질서를 부여하였다. 기술이라는 것은 문자이든 혹은 라디오이든 간에 이에 최대로 단호하게 반응하는데, 왜냐하면 눈이나 귀의 기술적 확장은 앞서 말한 맥루한의 감각들 간의 지배 비율에 따라 즉시 새로운 비율을 형성케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감각 비율은 사람들에게 놀랄 만큼 새로운 세계를 제공하고, 이는 모든 감각들 사이에 강력한 새로운 '폐쇄'나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턴을 낳았기 때문이다[1]. 이상의 직업적 환경은 '기술'이라는 것에 그를 끊임없이 노출시켰다. 그의 시에 유클리드 기하학의 사고적 접근과 수학적 기호의 기술은 그가 건축가라는 현실적 입장에서 접근했음이 분명하다.

이상을 논할 때 다다이즘이 빠질 수 없다. 다다에 대하여 "대단히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다라는 것을 쉽게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다의 놀라운 복잡성은 분명히 전쟁을 야기시킨 모든 문화적 가치를 철저히 거부하고 '백치상태로 비워진 후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3]. 이러한 다다는 '시각음향시'를 탄생시켰다. 이상의 생애가 '식민지'라는 시간 속에서 시작하여 끝이 났음을 본다면 그와 다다의 관계는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간에서 이상은 '소리'를 통하여 텍스트를 완성한 것이다. 이상은 '소리'를 일반적 경로가 아니라 '시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오늘날 그의 천재적 텍스트가 가능하였던 것은 이 모든 그의 환경이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였으며, 하나의 감각이 결코 그 본연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감각으로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감각적 전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맥루한의 촉각적 글쓰기의 완성이다. 다만, 그의 감각적 전이가 그의 고통에서 비롯된 진통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큰 아픔이다.

흔히들 이상의 텍스트를 해석할 때 그의 시는 회화적이고 시각적이라고 것에서 그치는 것은 그의 작품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의 세계가 일련의 숫자와 같은 단어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시각적 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일 뿐, 감성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상의 시는 마치 낮은 저음으로만 되어 있는 멜로디 혹은 '랩'과 같이 미니멀적인 리듬 속에 압축되어 있는 가사와 같다. 그의 시를 접하는 이들은 압축된 그의 시로부터 그 속에 숨겨진 풍부한 '감성'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시에 대해 단순히 단편적인 해석과 이해를 하기보다 전체적 그림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며 그의 시 세

계에 몰입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미디어의 관점으로 이상의 시를 살펴보았다. 그의 시 세계를 재해석 하는 것은 단순히 미디어아트 조류 속 시각적 특성에 입각한 '시각 예술'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호와 기의의 경계를 넘나드는 혼합적인 미디어 아트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시가 그러하였듯이 '기호' 속에는 '감성'이 녹아 있어야 한다. 그의 기호들은 단순히 기호화된 것이 아니라 괄호 속에 쓰인 짧은 문장들을 통하여 그의 기호에 진입할 수 있는 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키를 통한 그의 기호 암호가 서서히 풀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경적 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리에 대한 예민성은 말을 위한 침묵 앞에서 눈으로 도달한 것이다. 하나의 생각이 다른 감각을 통하여 그 생각의 수로를 만들어 운반한 것은 감각의 확장이라는 미디어의 측면으로 바라 볼 수 있다. 결코 직선이 원을 살해하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지배하는 수직적인 시선이 그의 작품을 지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융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성이 다른 감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일 뿐 어느 하나의 색깔이 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Marshall Mcluhan, "The Gutenberg Galaxy", 1962.

[2] 임상원, "맥루한의 사상과 철학-구텐베르크 은하계 이야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3] 김민수,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본 이상 시의 혁명성"

[4] 김종년 엮음, “이상 전집2”, 가람기획, 2004.

[5]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6] 김승희, “이상 시 연구”, 보고사, 1998.

[7] 김윤식, “문학사와 미술사의 만남”, 가나아트, 1989.

[8] 오광수, “한국 현대미술의 단층”, 평민사, 1981.